

34 공평한 사회일수록 차별에 의한 상처가 깊다

•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의 하위층에 속해 있는 개인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부러움도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애초에 ‘비교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사회적 제도로서의 신분 차별이 없어지면 표면상으로는 누구나 상위층에 속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높은 계층에 있는데 비슷한 출생 환경이나 능력을 가진 내가 그런 입장에 설 수 없다는 건 이상하다. 그 의문이 ‘공평성이 저해되어 있다’의 감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공평이나 공정과 정반대에 있는 차별이 이질성에 의해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차별이나 격차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격차나 차별로 인한 질투의 감정은 사회와 조직의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구성원에게 상처를 준다.

불평등이 사회 공통의 법일 때는 최대의 불평등도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거의 평준화될 때 인간은 최소의 불평등에 상처받는다. 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평등의 욕구가 더욱 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미국의 민주주의]

• ‘서열의 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혹은 ‘기준이 정당해도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열등성을 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공평한 조직에서는 이 자기방어가 성립되지 않는다.

• 우리가 안이하게 궁극의 이상으로 내건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는 정말로 바람직한 것일 까? 그 이상이 실현되었음에도 ‘당신은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회와 조직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일까? 공정이라는 개념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